

 금융위원회	<div>보도자료</div>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 금융감독원					
책 임 자	금융위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(02-2100-2690)		담 당 자	허 남 혁 사무관 (02-2100-2695)	
	금감원 회계심사국장 김 은 조(02-3145-7700)			이 형 석 팀 장 (02-3145-7720)	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홍 순 간(02-3145-7290)			정 광 윤 팀 장 (02-3145-7320)	

## 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☐ 금융위원회는 7월 13일 제13차 회의에서,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리드 등 2개사의 회사관계자에 대해,
-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

※ (주)리드 등 2개사에 대한 검찰고발·통보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\*에서 이미 의결하였습니다.

\* 5월 18일, 6월 16일 보도자료 <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>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<a href="http://www.fsc.go.kr">http://www.fsc.go.kr</a>	<b>금융위원회 대 변 인</b> <b>prfsc@korea.kr</b>	 <small>질병관리청 콜센터</small>
-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**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**

(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1.5.18. 의결)  
(제13차 금융위원회, 2021.7.13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b>(주)리드</b>  결산기 : 2017.3.31. 2017.6.30. 2017.9.30. 2017.12.31. 2018.12.31.  비상장법인  업종 :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	<b>【회사】</b>  ① 대여금 허위계상 (’17년 : 21,931백만원, ’18년 : 58,077백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회사는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금횡령액을 대여금으로 허위계상하고,</li><li>-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합리적 근거 없이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보증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</li></ul> ② 기계장치 허위계상 (’18년 : 2,015백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기계장치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였으며, 장부상 허위 기계장치를 계상하고, 손실은 반영하지 않음</li></ul> ③ 매출 과대계상 (’17년 1분기 : 6,174백만원, ’17년 반기 : 5,251백만원, ’17년 3분기 : 5,712백만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회사는 지급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외부협력사 매입대금을 누적발생원가에 포함하여 건설계약 진행률을 임의로 높게 산정함으로써 매출을 과대 계상함</li></ul> ④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회사는 소액공모 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2017년 반기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</li></ul> ⑤ 외부감사 방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회사 대표이사 등은 2018년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대여금 허위계상 및 기계장치 허위계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</li><li>- 채무보증의 효력이 없는 허위 채무보증계약을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고, 부동산 근저당권 등기를 임시로 설정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한 후 감사보고서일 이후 곧바로 말소하였으며,</li><li>-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감사인에게 제출 함으로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</li></ul>	<b>회 사 :</b>  - 증권발행제한 12월  - 과징금(前업무집행 지시자* 692.5백만원, 前대표이사 569.6백만원, 前담당임원 166.1백만원, 前감사* 13.5백만원)  - 과태료 48백만원  - 감사인지정 3년  - 前대표이사·감사 해임권고 상당  - 前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 - 검찰고발 (회사, 前대표이사 등 4인)  - 개선권고  - 시정요구  <div>* 외부감사법 전면개정 (’18.11월 시행) 이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업무집행지시자와 감사에게 과징금(급여 등의 5배 이내)이 부과된 최초사례임</div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)

##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1.6.16. 의결)  
(제13차 금융위원회, 2021.7.13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b>(주)이씨스</b>  결산기 :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 2018.12.31. 2019.12.31. 2020.3.31. 2020.6.30.  비상장법인  업종 :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 및 판매업	<b>【회사】</b>  ①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 ('15년 : 1,592백만원, '16년 : 2,549백만원, '17년 : 2,277백만원, '18년 : 1,689백만원, '19년 : 1,309백만원, '20년1분기 : 1,230백만원, '20년반기 : 1,400백만원)  - 회사는 유상사급채 매입액 및 외주가공비 등 비용항목을 유형자산 취득으로 변경하여 회계 처리함으로써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② 유상사급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('15년 : 13,659백만원, '16년 : 6,562백만원, '17년 : 7,493백만원, '18년 : 5,358백만원)  - 회사와 OOOOO(주)간 유상사급 매입·매출 거래는 실질적으로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지 않아 원재료를 제외한 임가공 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 - 회사는 원재료 금액이 포함된 제품가액을 매출액 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음  ③ 외부감사 방해  - 회사는 외부감사인에게 유형자산 취득에 대한 증빙으로 위조된 계약서 및 허위의 내부품의문 등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음	<b>회 사 :</b>  - 과징금 (회사 130백만원, 대표이사 8.4백만원)  - 감사인지정 2년  - 검찰통보 (회사, 대표이사, 前재무담당임원)  - 시정요구  ※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같음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